

내달부터 가계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기준 완화 생애최초 LTV 80% 이내 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확대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력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

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

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금리 인상을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

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 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립뉴스



광주본부세관은 22일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과 지역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세관, 김치자조금협동조합과 간담회

김치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광주본부세관은 22일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과 지역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은 김치생산자, 유통판매자, 김치 명인 등이 2020년 설립해 27개 업체, 32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본부세관은 K-FOOD 수출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초기기업 또는 FTA 활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세관의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김치수출을 증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김치 수출은 1억 6,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의

2021년 김치 수출은 935만달러로 전국대비 5.8%에 불과하지만 지난 5년간 증가 폭은 115%에 달했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김치자조금협동조합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지역 김치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신용보증기금,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신보형 ESG경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정부혁신 방향과 ESG경영 트렌드를 반영한 ▲신보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환경 조성 방안 ▲신보의 코로나19 연착륙 및 경기회복 지원 방안 ▲신보와 중소기업의 환경적

임 강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신보의 역할 등 총 10개의 공모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의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모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신보혁신 추진계획’과 ‘신보형 ESG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중기 비용 감면

중기중앙회-해운협회, 상생 협의 15개 체화·반환지연료 일시 감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

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공공배달업 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상

‘오메 위메프오’ 등 5개작 선정

(재)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공공배달업 위메프오’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영상공모전 수상작으로 대상에 ‘오메, 위메프오’ 등 5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오메, 위메프오’는 지역 사투리를 활용해 친근감 있게 광주공공배달업의 이용혜택을 지역민에게 소개한 작품이다.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작품으로 “부도남게 광주공공배달 위메프오에 대해 소개를 받고 사용하고 있던 중 영상공모전에 참여했다”고 후기를 밝혔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에는 광주상생카드 200만원, 50만원, 배달업 이용권 10만원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됐다.

선정된 5개의 작품은 향후 홍보영상으로 재편집 후 전광판, 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 방영



22일 광주공공배달업 위메프오 영상공모전 시상식에서 ‘오메, 위메프오’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경제고용진흥원 제공

할 계획이며, 광주공공배달업 공식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됐던 오택케어 후원 상품이벤트 시상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박성수 이사장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지역 청년 및 청소년들이 공공배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이미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이미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